

복음기도신문

복음기도신문은 복음과 기도의 증인들의 믿음의 고백과 열방의 뉴스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해석해 성도를 일깨우고 열방의 중보기도자로 세우기 위해 격주로 발행되는 신문입니다.



2010. 10. 3 창간

Gospel Prayer Newspaper

2019. 4. 7 ~ 2019. 4. 20 제202호



▶ 요르단의 광야 도피성

제공: WMM

누구든지 목 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민수기에는 도피성이 나온다. 부지중에 살인한 자가 생명을 보전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다. 도피성이 한 군데만 있는 것은 아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쉽고 빠르게 도피하여 생명을 보전할 수 있도록 이곳, 저 곳에 6개나 있다.

하나님은 죄인들이 어디에 있는지 도피성으로 빨리 나오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찾기 어렵

지 않다. 그 구원은 매우 가깝다. 지금 바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된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은혜의 자리로 나오기만 하면 된다.

자신의 죄 때문에 허덕이고 있는가? 돌파구를 찾느라 기진해졌는가? “누구든지 목 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 그리스도께

서 외치고 계신다. 지금 그분께로 나아오라.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라.

[GNPNEWS]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 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요한복음 7:37~38)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미국, 낙태 지지단체에 지원 금지 확대

외국 단체들 낙태 장려하지 않는 것 증명해야

미국 정부가 낙태를 홍보·촉진하거나 낙태 시술을 제공하는 외국 단체에 대한 지원을 금지하는 이른바 ‘멕시코 시티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는 지난달 26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국무부는 낙태 시술을 제공하거나 촉진하는 다른 기관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외국 단체들에게 더 이상 국제 보건기금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멕시코 시티 정책의 확대로 해외원조기금을 받는 비정부기구가 낙태를 지지하는 다른 단체에 자금을 지원해 온 구멍을 막을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멕시코 시티 정책’은 1984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선포했던 것으로, 비정부기구들을 향해 연방기금 수령 조건으로 다른 나라에서 가족계획의 방편으로 낙태 시행을 돕거나 증진하지 않을

것에 동의하도록 요구한 것이다. 이는 1993년 민주당 빌 클린턴 대통령 취임 후 폐지됐다가 2017년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부활됐다.

앞으로 이 기금을 받기 위해 단체들은 그들이 가족계획의 한 방편으로 낙태 시술이나 낙태를 권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GNPNEWS]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 듣고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사무엘상 26:21)

기도 | 주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일들이 미국 안에서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일로 미국을 다시 깨우시고 복음의 터 위에 세워진 나라답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77)

“헌금 때문에 교회가기 싫어요”

누구나 기쁜 소식 즉, 복음을 듣기 원한다. 복음을 갈망하는 영혼들을 위해 다양한 믿음의 고백들을 거쳐 자씨선교회에서 제작한 전도지에서 발췌, 소개한다. <편집자>

“생활하기도 빠듯한데 교회 가면 헌금을 내야 하잖아요. 경제적으로 부담이 돼요.” 어쩌면 당신은 아주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계십니다. 돈 잘 버는 독신 남성이 있었습니까. 결혼하면 자기 돈을 아내와 나눠 써야 할 것 같고, 더욱이 자식이 생기면 자기의 돈을 엄청나게 축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남성이 결혼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했다면 당신은 옳은 결정이라고 지지하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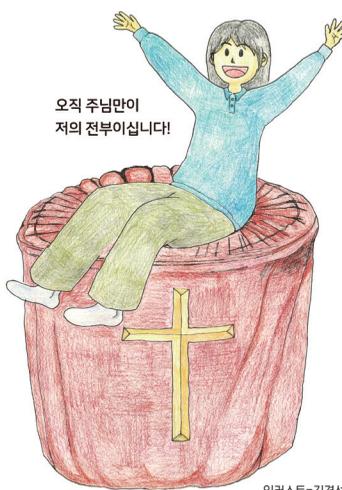
아마도 지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내나 아이는 돈을 축내는 존재가 아니고, 오히려 그들의 존재 자체가 당신에게 열심히 살고 싶은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대상에게 돈을 쓰는 것은 기쁨이요, 아까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당신의 마음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마음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헌금이 부담스럽습니다. 교회생활을 시작해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당신이 온전히 반응하기 전까지는

당연히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속지 마십시오. 아들 예수까지 내주면서 당신을 구원하길 원했던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주머니의 돈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입니다. 헌금은 당신 마음의 표현일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람 눈치 봐서 혹은 내 자랑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재정에 기여하기 위해서 내는 것, 말씀 들은 대가로 내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분의 사랑은 당신이 가진 물질로 도저히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 자체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당신이 죽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 보내신 그 사랑



일러스트=김경선

을 깨닫게 되면 당신도 하나님께 사랑으로 반응하게 되며, 그때 헌금은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될 것입니다. [GNPNEWS]

*** 복음의소리 316전화**
삶이 힘드십니까? 갈급한 마음으로 전화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난 전화는 삼가해 주세요. 신앙 상담전화 ☎ 1670-3160

INSIDE

뉴스
“북에 교회를 세우는 것, 통일로 가는 길” 2면

지상중계
유신진화론은 전통적 기독교 신앙과 조화될 수 없다 3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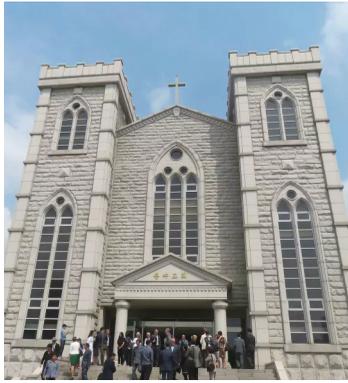
인터뷰 | 주창호·이혜경 부부
“우리 집은 언제나 개방이예요! 선교사님들 오세요” 5면



칼럼 |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위기의 시대에 교회가 지켜야 할 최후의 보루” 6면

복음과기도미디어는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소망하며 미디어로 열방을 섬기는 초교파 선교단체입니다.

“北에 교회를 세우는 것, 통일로 가는 길”...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공사



▶ 봉수교회 전경(출처: koreakonsult.com 캡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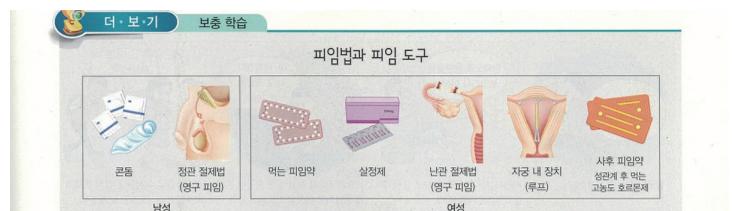
북한을 정상국가로 만들기 위해서는 북한에 교회당은 한 개라도 더 건설하고 기독교의 자유를 허용해야 한다고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공사가 지난달 26일 열린 송실대 통일아카데미(원장 조요섭 초빙교수) 오픈강의에서 밝혔다. 태 전 공사는 이날 강의에서 “북한을 정상국가로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만일 우리가 (북

한에) 교회당을 한 개라도 더 건설하고 기독교의 자유를 조금씩 허용해나간다면 북한을 다원화된 사회로 만들 수 있으며 생각했던 것보다 대단히 쉽게 평화적인 통일이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은 6.25 전쟁 이후 교회당을 모두 허물었고, 1970년대 말에는 김일성이 북한에서 종교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선포”했지만 돌연 북한이 1988년 봉수교회당을 건설한 이유는 “‘88서울올림픽’이 성공적으로 열리자 북한은 ‘89 평양 세계청년학생축전’을 준비하며 정상국가라면 있어야 할 교회당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뒤엎는 적화통일 전략을 가진 북한이 1980년대 말, 한국에서 일어난 민주화 운동에 종교세력이 부상하자 종교 말살 정책을 감추고 이들의 지지와 인도주의 지원을 받기 위해 봉수교회

를 세웠다고 말했다. 태 전 공사는 “종교 말살, 탄압은 미국이 꾸며낸 것으로 책임을 돌리기 위해 북한은 평양 등 큰 도시에 열 개의 교회를 지으려 했으나 봉수교회, 칠골교회 두 개를 짓고 멈췄다.”면서 이는 “일요일 예배시간만 되면 교회 주위를 어슬렁거리는 나이 든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으며,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시인했고 봉수교회도 김일성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어서 하나님이 지어준 것’이라고 말해 당국이 종교의 힘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봉수교회는 남한 적화통일에 종교단체를 이용하기 위해 설립됐지만, 가짜 교인으로 투입된 북한 사람들이 변화되면서 “북한 당국이 종교정책을 잘못 펴다 북한체제를 위협하는 요소로 자랄 수 있음을 인식했다.”고 덧붙였다. [GNPNEWS]

무엇을 위한 성교육인가?... 초중고 교과서 개정·삭제 시급

국내 초·중·고등학교 교과서가 노골적인 성기 및 성관계 그림을 제시하고, 피임 방법, 자위행위를 부추기는 등 부적절한 성교육 관련 내용의 삭제 및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생명인권학부모연합이 국내 사용 중인 81종의 교과서 분석 결과, 상당수 교과서들이 중학생들에게 피임 방법에 대해 설명한 이후, ‘자신이 선택한 피임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자’거나 ‘사용 도중에 콘돔이 찢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제시하고 있다. 들샘중학교 보건교과서(한미란 외, 2009)는 콘돔, 월경주기법, 먹는 피임약, 정관 수술, 난관 수술 등 10가지 이상의 피임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 학생들의 호기심을



▶ ‘피임법과 피임도구’를 설명하는 교문사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서(출처: 생명인권학부모연합)

자극하고 있다. YBM 보건교과서(우육영 외, 2009)는 질외 사정법과 사후 피임약 사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있다. 금성출판사의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서(조강영 외, 2015)는 청소년기의 준비되지 않은 임신과 출산은 부모와 아기 모두에게 불행을 가져온다는 전제 아래 피임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교문사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서(이상봉 외, 2009)는 자위행위를 설명하며, 지나치지 않으면 건강에 해롭지 않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밖에 동성애와 에이즈에 대한 부적절한 설명 등 현행 교과서는 다음세대에게 왜곡된 성지식을 가르치는 등 심각한 문제를 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학부모와 시민들은 다음세대 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전 국민 교과서 개정·삭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GNPNEWS]

美 아주사퍼시픽대학교, 동성애 허용하기로 결정

복음주의 계열의 신학교로 알려져 있는 캘리포니아 주의 아주사퍼시픽대학교(APU, 이하 아주사대학)가 학생들의 동성애 관계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미국 일간 샌가브리엘벨리트리분이 지난 19일(현지시간)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아주사대학은 그동안 캠퍼스에서 LGBT 관계를 금지했던 학생 지도 가이드라인을 수정해 동성애를 허용하기로 하고 동성애 관계 금지 언어를 삭제했다. 마크 스탠턴 교무처장은 “아주사

대학은 학생들에게 기독교인이 될 것을 요구하지 않는 공개등록기관이며, 학생 지도 가이드라인은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와 같은 보살핌과 예의로 대우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면서 “우리의 가치는 변함이 없으며 아주사대학의 기독교 복음주의의 정체성은 명백한 성서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주사대학은 지난해 9월 학생들의 행동지침에서 동성 관계를 금지하는 표현을 삭제하겠다고 발표

했지만 기독교 언론과 전문가, 학생들의 거센 반발이 일어나자 발표한 지 일주일 만에 동성애 허용 방침을 번복했다. 그러나 또 LGBT 지지그룹이 지속적으로 변경을 요구해 오자 결국 동성애 허용 방침을 결정했다. 아주사대학은 1899년 ‘하나님 먼저’라는 슬로건으로 사역자를 양성하는 훈련학교로 설립된 학교로 한국어 과제도 개설, 운영되고 있다. [GNPNEWS]



복음기도신문은 긴급한 열방의 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열방의 교회, 다음세대, 창결하는 죄, 이주민 문제, 영적 전쟁 등의 관점에서 전세계 언론과 통신원들을 통해 모아진 열방의 소식을 요약, 정리해서 제공합니다. <편집자>

브라질 대통령, 미국 복음주의자들과 만남 갖고 기도 받아

미국 팻 로버트슨 목사가 이끄는 수십 명의 미국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자이르 보우소나로 브라질 신임 대통령과 만남을 갖고 남미의 미래와 전통 기독교 신앙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그를 위해 함께 기도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브라질과 남미를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셔서 폭력과 살인, 가난으로 얼룩진 그 땅의 영혼들이 복음으로 회복되어 하나님을 찬송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분쟁지역 아이들, 폭력보다 오염된 물로 숨진 아동 3배 높아

22일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유엔아동기금(UNICEF)이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해 톰슨 로이터 재단은 분쟁지역에서 오염된 물과 낙후한 위생시설 때문에 목숨을 잃는 아동이 폭력으로 숨진 아동보다 약 3배가량 많다고 지적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주님, 영원한 해결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이들에게 필요합니다. 그 생명이 아이들 자신의 죽은 영혼을 살릴 뿐 아니라 다른 사람과 이웃과 열방까지 살리는 복의 근원으로 사용하옵소서.

사이클론 ‘이다이’ 아프리카 덮쳐... 사망 750명, 이재민 11만 명

사이클론 ‘이다이’가 아프리카 남부를 덮친 지 열흘이 지난 현재, 대피소에 수용된 이재민 11만 명, 확인된 사망자만 750명(모잠비크 446명, 짐바브웨 259명, 말라위 최소 56명)을 넘어섰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주님,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의 마음을 보살피주십시오. 구호단체들을 통해 그들의 필요가 채워지되 특별히 십자가의 복음을 생명으로 붙들게 하옵소서. 반복되는 재해로 무너진 이 땅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되는 은혜의 터로 변화시키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양산시민연합 경남학생인권조례 폐기 촉구

양산시민연합이 27일 경남학생인권조례안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조례 수정이 아닌 폐기를 촉구하며 시민을 우롱하는 인권조례를 반대한다. 교육감은 자녀를 망치는 나쁜학생권리조례를 포기해 달라.”고 밝혔다. 경남도민일보가 전했다.

다음세대를 더욱 죄로 몰들이는 조례안들에 대해 부모세대가 맞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음세대를 삼키려는 사탄의 입에서 견제주시고 도덕적 차원을 넘어 복음으로 거룩함을 되찾는 다음세대 되게 하옵소서. [GNPNEWS]

느헤미야52기도 참여교회 및 단체

2019년 4월 8일 ~ 4월 20일

- 4월 8일~4월 13일 ▶ 서울 광진 / 빛가소교회(권**)010-7754-1726, ▶ 전남 나주 / 풍성교회(이**)010-9220-0815, 4.8(0~24시) ▶ 전북 전주 / 사랑하는교회(이**)010-7709-0691, 4.8-13(06~21시) ▶ 서울 강남 / 강남선한목자교회(김**)010-6235-4405, 4.9~12(10~12시) ▶ 경기 광주 / 창대교회(김**)010-4715-3727, 4.10(09~17시) ▶ 경남 진주 / 예수로교회(윤**)010-7925-6004, 4.10(06시)~4.11(06시) ▶ 서울 서초 / 평안교회(송**)010-5791-9197, 4.11(11~13시) ▶ 인천 연수 / 인천안디옥교회(이**)010-4200-5237, 4.12(0~24시) ▶ 경남 김해 / 진영소망교회(김**)010-4567-8775, 4.12(10~18시) ▶ 경기 김포 / 꿈꾸는(구 김포전원)교회(강**)010-4128-0448, 4.12(20~22시) ▶ 경북 울릉 / 동산감리교회(조**)010-2639-8795, 그외 11교회 진행중.

- 4월 15일~4월 20일 ▶ 경남 김해 / 한가죽교회(이**)055-343-6091, ▶ 강원 춘천 / 춘천중부교회(현**)010-4612-9399, ▶ 전북 남원 / 은혜의샘교회(김**)010-3290-4316, ▶ 경기 부천 / 산돌교회(박**)010-9527-2468, ▶ 전남 신안 / 열방선교센터(강**)010-7364-9982, 4.15(10~15시) ▶ 경남 창원 / 진리의빛교회(김**)010-9218-6023, 4.15~16(06~20시) ▶ 인천 서구 / 사랑교회(염**)010-5657-9191, 4.15(07시)~4.19(23시) ▶ 강원 강릉 / 은강교회(박**)010-7439-7020, 4.15~19(14~22시) ▶ 광주 남구 / 십자가복음교회(김**)010-9883-2347, 4.16(11~13시) ▶ 경기 수원 / 주님의교회(조**)010-5417-9933, 4.19(10시)~4.20(10시) ▶ 서울 광진 / 한국중앙교회(황**)010-7766-3100, 그외 10교회 진행중.

* 더 많은 정보는 기도24365홈페이지(www.prayer24365.org)를 참고해주세요. 느헤미야52기도에 함께 하기를 원하는 분은 사전에 연락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느헤미야52기도 문의 ☎ 010-5424-4641)



유신진화론은 전통적 기독교 신앙과 조화될 수 없다

최근 성경의 창조 역사를 부인하는 유신진화론을 일부 기독교인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가운데 기독교학술원(원장 김영한 박사)이 지난 3월 15일 과천소망교회에서 '유신진화론 비판' 학술토론회를 열었다. 유신진화론은 타협이론에 불과하며 기독교 신앙과 양립할 수 없다는 내용의 발표문을 요약, 소개한다. <편집자>

유신진화론은 성경적 진리를 자연주의에 맞추려는 시도

(김영한 박사, 기독교학술원 원장)

유신론적 진화론은 진화론의 영향을 받은 세계 창조 이해에 관한 타협이론이다. 이는 창조를 진화과정으로 여기고 초월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진화 과정 속으로 제한시키며 자연과정을 우선시한다. 유신진화론은 인간이 진화 역사를 겪었다면 이미 여러 동물에서 진화된 다수의 사람이 존재해야 하므로 아담이 유일한 첫 사람이라는 성경 기록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유신진화론자들은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성경 기사는 사실적인 보도가 아니고 신화 내지 상징이나 시적 표현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유신론적 진화론자들은 우주는 오랜 시간 동안 자연선택과 같은 진화과정에 의해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고 본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연과정을 초월한 주권적 행위(말씀)를 통해서 창조하셨음을 부정한다. 이들은 진화와 지질시대와 빅뱅우주론은 과학적으로 타당하다는 신념 때문에 오히려 성경을 과학적으로 해석하고 증명하려는 모순에 빠져있다. 진화론적 지질시대를 받아들이는 것은 아담의 범죄 이전에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된다. 왜냐하면 각 지질시대를 나타낸다는 퇴적지층 속에 들어있는 화석들은 죽음의 기록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유신진화론에서 신은 성경이 증언하는 인격적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조직력을 가진 우주나 세계와 동일시되는 범신론적 접근이다. 유신진화론은 신의 창조 행위를 언급하나 세상을 일단 창조한 후에 더 이상 간섭하지 않고 자연법칙에 모든 것을 맡기는 자연신론(이신론)을 주장한다.

유신진화론자들은 진화론과 복음주의의 기독교 신앙이 양립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들은 계몽주의 이래 도출한 여러 가지 참된 기독교 신앙을 훼손하는 하나님을 그려내고 있을 뿐이다.



복음기도신문

창세기를 믿지 않아서 진화론을 받아들인 타협이론

(한윤봉 박사, 한국창조과학회장)

사람들은 우주와 생명의 기원 문제를 하나님 없이 설명해보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되풀이하고 있다. 그런 노력의 대표적인 결과가 진화론이며, 창조론과 진화론을 혼합한 다양한 타협이론들이다. 타협이론은 인간의 이성주의와 과학주의 때문에 창세기의 내용을 기록된 대로 믿지 못하고, 진화론과 타협함으로써 창조사실을 부정, 왜곡, 변질시키는 일체의 이론을 말한다.

타협이론의 뿌리는 진화론과 지질시대론이며, 성경의 역사를 지질시대론의 역사와 타협함으로써 다양한 타협이론들이 나왔다. 그러나 진화론의 기본가정은 '우연'과 '생명의 자연 발생'이다. 우연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진화론은 원인을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우연의 결과로 설명하려 한다. 그러나 어떤 과학자도 우연을 전제로 연구하지 않는다. 자연과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구상에는 변하지 않는 두 개의 생물학 법칙이 있다. 첫 번째는 '생명은 생명으로부터만 나올 수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멘델의 유전법칙이다. 프랑스의 생화학자 파스퇴르는 1861년 '자연발생설 비판'을 통해, 고깃국물에서 미생물이 증식하는 것은 자연 발생의 결과라는 주장이 틀렸음을 입증했다. 또한 유전학적으로 중요한 사실은 한 종류의 생물은 유전적 장벽으로 다른 종류의 생물로 진화될 수 없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유전법칙에 위배되는 진화론은 생명의 기원을 설명할 수 있는 과학이 아닌 것이다.

연대측정 방법이 없던 시대인 1872년 발표된 찰스 라이엘의 지질시대론은 그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 라이엘은 연대측정이 안

된 상태에서 수억, 수천, 수백만 년에 해당하는 지층과 화석들을 그저 지질시대론에 끼워 맞춰 넣은 것이다. 138억 년 전 거대한 폭발로 우주 천체가 만들어졌다는 빅뱅 우주론 역시 천체 물리학자들이 답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있다. 빅뱅에 필요한 에너지는 언제 어떻게 존재했으며, 왜 폭발하였는가? 최고 수준의 질서를 유지되게 하는 미세 조정이 우연히 가능할까? 심각한 문제는 우주의 팽창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데, 우주의 가속 팽창을 일으키는 정체 불명의 에너지는 도대체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 유전적 특성을 가진 생물은 진화론으로 설명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 대표적인 생물 중 하나인 폭탄먼지벌레의 모습. 이 벌레는 적이 나타나면 공무니 부근에서 독성물질을 뿜어 자신을 방어한다(출처: thehigherlearning 캡처)

질서의 하나님은 무질서를 만드는 폭발의 방법을 사용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다. 빅뱅우주론을 믿는 것보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때 모든 과학법칙을 정해놓으셨고, 그 법칙에 따라 우주 천체가 최고의 질서로 정교하게 운행되도록 처음부터 완벽하고 성숙하게 창조하셨음을 믿는 것이 더 쉽고 논리적이다. 성경 어디에도 대폭발을 암시하거나 설명하는 구절이 없으며, 빅뱅우주론은 지구와 천체의 창조 순서를 성경과는 반대로 해석해야 하기 때문에 비성경적이다.

질서의 하나님은 무질서를 만드

는 폭발의 방법을 사용하실 필요가 없다. 성경 어디에도 대폭발을 암시하거나 설명하는 구절이 없으며, 빅뱅우주론은 지구와 천체의 창조 순서를 성경과는 반대로 해석해야 하기 때문에 비성경적이다.

아담 이전에 인류가 있었다는 유신진화론은 비성경적

(김병훈 박사, 합신대학교)

세 가지 관점으로 조망해보자. 첫째, 창조론이다. 전통적 창조론은 하나님이 직접 생명체를 창조하셨다고 믿는다. 그러나 유신진화론은 '하나님이 물질을 창조하셨고, 그 물질이 자체에 담긴 속성에 따라서 생명체를 낳았다'는 진화의 방식으로 물질을 창조했다는 주장이다. 교회는 니케아 신경에서 보듯이 하나님이 '하늘과 땅, 그리고 보이는 모든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의 창조주이심을 고백했다. 이 고백을 통해 교회가 이해한 것은 하나님이 온갖 종류의 식물들과 동물들을 직접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이다.

둘째, 인류의 조상에 대한 입장이다. 전통적인 창조론은 아담과 하와를 인류의 조상으로 고백한다. 그러나 유신진화론은 이들 이전에 아담과 하와를 낳은 생물학적 부모인 선행 인류가 있다고 주장한다.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에 선행 인류 가운데 한쌍을 선택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하셨고, 현행 인류는 선택받은 선행 인류인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라는 진화론적 인류일조설. 특정 시점에 하나님이 개입해 한 그룹이나 모두에게 자신의 형상을 부여하고 나머지는 멸절케했다는 특정시점의 인류다조설. 선행 인류들이 진화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과 인간의 타락 양상이 점진적으로 알 수 없게 나타났다는 점진적 인류다조설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교회는 아담과 하와를 인류의 시조로 보지 않는 주장을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간

주한다. 셋째, 죄와 죽음에 대한 관점이다. 전통적인 창조론은 아담과 하와는 무죄한 사람이었으며, 아담의 죄의 결과로 사람의 죽음이 시작되었다고 믿는다. 반면에 유신진화론은 아담과 하와는 무죄한 사람인 적이 없었으며, 선행 인류들도 악을 저질러왔고, 사람의 죽음은 아담의 죄의 결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있어왔으며 본래 죽게끔 되어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튜레틴은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자연적인 죽음이 있었다는 것은 율법에 의하여 정죄 받지 않는 죽음이 있다는 것을 말한다며 성경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만일 그렇다면 죽음은 죄의 삯이며, 죽음의 근거는 죄를 처벌하는 율법의 법적 권세 이외에 다른 데에 있지 않다는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아담과 하와를 신화로 보는 유신진화론은 전통적 기독교에서 수용 불가

(우병훈 박사, 고신대학교)

유신진화론자들이 가진 가장 심각한 문제는 아담과 하와에 대한 견해다. 그들의 주장은 이렇다.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인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유신진화론자 알렉산더는 여섯 가지 아담론을 제시했다. 아담과 하와에 대한 성경의 진술은 신화이다. 현생 인류가 20만 년 전 아프리카에서 진화했으며 그 이후 점차 하나님을 인식하고 예배로 반응하게 됐다는 등의 모델이다.

그러나 그의 견해는 여러 문제를 야기한다. 아담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구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또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어떤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창조하셨다고 하지 않고, 다만 아담과 하와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하셨다고 가르치고 있다.(창 1:27)

또 아담 한 사람이 모든 인간들의 공통 조상이 아니라면 예수는 도대체 누구를 대표할 수 있겠는가? 인간 종이 그토록 다양하다면 예수는 더 이상 인간 전체를 대표할 수 없게 된다.

오늘날 많은 복음주의권, 개혁주의권 내에서 많은 이들이 유신진화론이 마치 기독교 신앙과 조화될 수 있는 이론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여긴다. 하지만 알렉산더의 아담론을 몇 가지 검토한 바와 같이, 유신진화론은 전통적 기독교 신앙과 조화될 수 없다. 따라서 유신진화론을 수용할 수 없다. [GNPNEWS]

기획 | 창조 이야기(13)

왜 가장 오래 된 나무가 4300년밖에 되지 않았을까?

본지는 창조론 전문가인 미국 켄트 호빈드 박사의 창조론 강의를 요약, 소개한다. 호빈드 박사의 강의는 성경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흥미롭게 설명하며, 진화론이 거짓 믿음 체계임을 명쾌하게 밝히고 있다. <편집자>

‘지질주상도’는 ‘각각의 지층이 다른 시대를 가리킨다’고 우리는 배워왔다. 신생대, 중생대, 고생대, 원생대가 바로 그렇게 구분된 시대다. 그러나 이 지질주상도 전체가 거짓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가?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

전 세계적으로 여러 암반층으로 연결되어 똑바로 서 있는 화석화된 나무가 발견되고 있다. 지질주상도로 설명하면, 여러 지층이 연결되어 있는 화석화된 나무의 나이는 수백만 년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런 나무는 없다. 미국 텍사스주 쿡빌에 있는 화석 나무 아랫부분은 탄화되어 있고 가운데는 석화되어 있는데 윗부분은 다시 탄화되어 있다. 그리고 두 개의 석탄층을 통과해 있다.

세인트 헬렌 산의 나무들이 수직으로 스피릿 호수에 묻혔는데, 물을 잔뜩 머금은 이 나무들은 수직으로 선 모습으로 가라앉았다. 그리고 이 나무들은 세인트 헬렌 산이



▶세인트 헬렌 산 폭발 후 스피릿 호수에 수직으로 떠 있는 통나무들. 나무들은 계속 쌓이는 퇴적물에 의해 마치 그 자리에서 자랐던 나무들처럼 여러 높이에서 선 채로 파묻혀있다 (출처: 창조과학회)

폭발할 때 어마어마한 만년설이 녹으면서 생겨난 광물질이 풍부한 뜨거운 물로 인해 빠른 시간 안에 화석화됐다. 실제로 한 화석화된 장작은 출산 중인 물고기가 화석화 된 모습을 품고 있다. 물고기가 출산하는 데 수백만 년이 걸리지 않는다. 그만큼 나무의 화석화 속도가 빨랐다는 말이다. 사람의 뼈도 화석화가 빠르게 진행된다. 1980년 텍사스주의 이란에서는 화석화된 카우보이의 다리가 들어있는 카우보이 부츠를 발견했다. 당시 기사는 이 부츠를 ‘석회암 카우보이(The Limestone Cowboy)’로 명명했다.

미시시피 강은 시간당 8만 톤의 침적물을 쌓고 있다. 8만 톤의 진흙이 뉴올리언스로 떠내려오기 때문에 하류의 삼각주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사람들은 그 삼각주를



자세히 연구한 후, 그 삼각주의 진흙이 쌓이는 데 3만 년쯤 걸렸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렇다면 질문이 있다. 지구가 수백만 년 되었다면 멕시코만 전체가 지금쯤 진흙으로 가득해야 하지 않을까? 이 질문에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호빈드씨, 3만 년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성경은 6000년이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나는 이 문제에 대한 이론을 가지고 있다.

나는 6000년 전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들었고 4400년 전에 홍수가 있었다고 믿는다. 홍수의 물이 빠질 때 그 진흙의 반 정도가 약 20분 만에 미시시피 강 삼각주로 쓸려가 쌓였다. 진흙들이 쌓이기까지 3만 년이나 걸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약 20분밖에 걸리지 않았고, 그

이후로 4400년이 지난 것이다. 실제 세인트 헬렌 산 폭발 때, 저탁류로 몇 시간 혹은 며칠 이내에 지층이 쌓였다.

루이지애나에서 목회자로 섬기고 있는 한 사람이 말했다. “저는 예전에 멕시코 만에서 석유 시추할 때 참여했습니다. 우리가 1만 4000피트(약 4.3km)를 팠을 때 6피트(약 1.8m)짜리 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6피트짜리 나무가 1만 4000피트 진흙 아래에 수직으로 서 있었다는 것이다.

브리슬콘 소나무는 지구상 가장 오래된 나무라고 한다. 우리 박물관에 소장하고 있는 브리슬콘 소나무 조각은 직경이 30인치밖에 되지 않는데 700년이나 되었다. 나무의 나이테는 돋보기를 이용해서 셀 수도 있다. 그러나 나이테 연대 측정법은 정확한 과학은 아니다. 나무가 1년에 2개나 3개의 나이테를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복 배열 나이테 연대 측정법을 조심해야 한다.

교과서는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는 4300년 되었다고 가르친다. 지구상 가장 오래된 생명체라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질문이 있다. 만약 지구가 수백만 년 되었다면 왜 어딘가에 더 오래된 나무가 없는 걸까? 왜 가장 오래 된 나

무가 4300년밖에 되지 않은 걸까? 이 질문에 대한 나의 이론은 이렇다. 약 6000년 전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들었고 약 4400년 전에 홍수가 있었다. 그러므로 나는 가장 오래된 나무가 약 4300년 정도 되어야 한다고 예측한다. 한번은 호주의 브리스베인에 있는 교회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호주에 와서 설교를 해주세요.” 기도한 후 기로 했다. 가족들을 데리고 간 호주에서 딸과 함께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에서 스쿠버 다이빙을 했다.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다.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는 세계 최대 규모의 산호초 지대다. 그러나 산호초 일부는 2차 세계대전 때 배, 뱃, 폭탄 등으로 파괴됐다. 환경주의자들은 정부의 지원을 받는 프로젝트로 부서진 산호초가 얼마나 빨리 다시 자라는지 연구했다. 그들은 산호초가 자라는 것을 20년 동안 지켜보았다. 그들은 연구의 결론으로 이 지역의 산호초가 4200년 미만이 되었다고 말했다.

나는 다시 한 번 질문한다. 만약 지구가 수백만 년 되었다면 왜 어딘가에 더 큰 산호초가 없는 것인가? 지구상 가장 큰 산호초는 왜 4200년 되었을까? 이에 대해 나에게 이론이 있다. 여러분은 그게 뭔지 알 것이다. <계속> [GNPNEWS]



선교 통신

정체된 도로에서 무슬림에게 배포한 전도용 카세트테이프로 회심

스페인, 모로코 등지에서 무슬림 대상 전도의 문 “활짝”

유럽에 거주하고 있는 무슬림은 3000만 명이 넘습니다.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북아프리카 무슬림 이민자에게 성경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은 특히 1992년에 스페인 바르셀로나 하계 올림픽 기간에 많은 선교단체들에게 무슬림들을 선교할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프랑스 트럭회사의 파업으로, 북아프리카로 여행하려고 하던 무슬림들이 스페인 남부 알헤시라스(Algeciras) 항구로 몰리게 되면서 무려 80km 구간이 차량정체 상태였습니다. 당시 알헤시라스에 있던 몇몇 선교사가 전도용으로 제작했던 카세트테이프를 도로로 나가 나눠주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다음 해인 1993년 어느 날, 바이블 소사이어티, CCC와 다른 선교단체 사역자들이 함께 도로에 정체된 무슬림들의 차량에 다양한 복음 전도물품들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차에서 내린 모

로코 형제가 사역자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작년에도 당신을 보았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준 카세트테이프를 우리 가족이 들으면서 지루한 여행을 즐겁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은 크리스천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경배포 사역을 통해 보고된 첫 열매였습니다. 하나님은 굳게 닫혀있는 북아프리카의 문을 열기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그로 인해 북아프리카와 유럽의 무슬림 가운데 하나님나라의 확장이 시작되었습니다. 1993년 당시 모로코에서 기독교인은 거의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25년이 지난 지금 모로코에는 4만 명 이상의 크리스천이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우리 팀은 2014년 3월 스페인 지브롤터 해협에 있는 안탈루시아의 한 항구 도시인 말라가로 파송 받았습니다. 우리가 품은 대상은 유럽 무슬림 이민자들이었습니다. 그 해 4월 성경배포 사역을 하던 디렉

터를 만나게 되었고 이후 우리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새벽에 북아프리카의 멜리야(Melilla)에서 오는 여객선을 대상으로 신약성경 패키지를 나눠주었습니다.

사역 첫해 알헤시라스 항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항구는 24시간 여객선이 운행되는 지중해 연안에서 가장 붐비는 곳입니다. 여름 사역이 시작되고 뉴스를 보게 됐습니다. 알헤시라스 항구를 통해 7월 마지막 주 주말에 아프리카로 건너간 여행객들이 50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믿기지 않는 숫자였습니다. 10일간 성경을 나눠주기로 하고 야간에 나갔습니다. 저녁 11시에 사하라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모래바람을 맞으며 입으로는 기도하며 항구로 향했습니다.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그는 새벽 4시쯤 여객선 승선을 위해 기다리고 있는 긴 의자에 앉아서 쉬고 있었습니다. 나는 다가가 성경 패키지를 권했습니다. “나는 무슬림입니다. 이곳에서 30년을 살았습니다.” 이 말에 나는 그와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성경의 선지자들의 이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위대한 선지자 모세는 그에게도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모세의 이름의 뜻을 아시나요?” 나의 질문에 그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나는 모세의 탄생으로부터 시작해서 그의 생애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미 오신 구세주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말해주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어떻게 알고 있나요?” 노인의 질문에 모든 이야기가 성경 속에 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 후 한 시간이 넘게 무슬림들이 알고 있는 성경 속의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그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날의 만남을 통해 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슬림들을 만날 때 무엇을 준비하고 있어야 할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하고 명확한 복음의 내용과 성경의 많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구약의 이야기들로 무장하고 쉬우면서도 복음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훈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무슬림들에게 무료로 배포하는 성경 패키지(남사현 선교사 제공)

지금 지중해 연안을 통해 이동하는 많은 무슬림들을 대상으로 성경 배포와 전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은 무슬림들과 만나서 대화와 전도를 통해 복음을 직접 전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전략 지입니다. 성경 패키지를 받아드는 무슬림 형제, 자매들마다 마음 문을 열어 복음을 알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곳 지중해 선교의 영광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들을 초대합니다. [GNPNEWS]

스페인=남사현 선교사

* 선교지 소식을 제보해 주세요.

긴급한 열방의 상황이나 숨겨져 있는 부흥의 소식을 알려주세요. 독자들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gnpnews@gnmedia.org, ☎ 010-6326-4641, 070-7417-0408

나눔&나눔 삶의 나눔으로 되새겨 보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집은 언제나 개방이에요! 선교사님들 오세요”

최근 중국, 인도 등 해외 선교지에서 한국 선교사들이 잇따라 추방되고 있다. 추방된 선교사들은 한국에서 머물 곳이 없어 찜질방을 전전한다고 한다. 추방이 아니더라도 한국을 방문한 선교사들은 조건에 맞는 게스트룸을 구하기도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런 소식을 들은 주창호 권사와 이해경 전도사 부부는 자신들의 집을 개방하기로 했다. 대대로 우상을 섬겨왔던 종갓집에서 안식처가 필요한 선교사들을 섬기는 집으로 변화시키신 하나님의 한 수를 들어 본다.

-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들에게 집을 내어주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이야기가 궁금해요.

주창호(이하 주): “선교훈련을 받으면서 차드와 키르기스스탄 두 나라를 다녀왔는데요. 차드에서 만났던 선교사님이 한국에 오셨는데 머물고 계신 장소가 불편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우리 집이 생각났습니다.

이 집을 지을 당시에는 대가족이라 집을 크게 지었는데, 어머니가 소천하시고 아버님과 저희 부부 셋이 살기엔 장소가 너무 넓은 거예요. 아버님도 이 큰 집을 처분하지 않았으면 하셨죠. 활용할 수 있는 빈방이 있으니 머물 곳이 필요한 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집에 남는 방도 있고 마당에 텃밭도 있고 오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몇 분이 오셨고 6개월 정도 쉬고 가신 분도 계셨어요.”



▶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주창호 권사와 이해경 전도사 부부의 집 전경

이해경(이하 이): “최근 참석한 집회에서 중국에서 추방당한 선교사님들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한국에 오셨는데 갈 곳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시 한 번 섬기고 싶은 마음이 들더군요. 이번에 인터뷰를 통해 더욱 알리고 싶어요. 우리 집은 언제나 개방이에요! 그런데 차가 없으면 버스정류장에서 집까지 15~20분 정도의 거리를 걸어와야 한다는 점이 좀 아쉽죠. 그래도 주님이 우리 집을 교

제의 장으로 써주시는 데는 별 지장이 없어요. 지난번에는 스리랑카, 파키스탄에서 오신 선교사님들과 함께 식탁교제를 나누기도 했어요.

이런 모임이 참 즐거워서 섬겼어요. 이렇게 집을 내놓은 지는 3년 정도 되었어요.”

추방당한 선교사님 이야기 듣고

- 집을 내준다는 것은 주님의 마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 같은데,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셨는지 궁금하네요.

이: “저는 절에 열심히 다녔던 사람이에요. 아이들 입시 때마다 삼천배를 두 번이나 할 정도로 열심히었죠.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시어머니가 간암 말기 판정을 받게 되셨어요. 시어머니는 처녀 때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종갓집 종부로서 집안일을 하면서 교회에 못 가게 되셨죠. 저는 부처님께 빌고 어머니는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빌자고 했어요. 종교는 다 각각이고 길은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1년간 항암치료를 받으시면서 어머니는 다시 교회에 나가게 되셨어요. 어느 날 쓰러진 후 입원해 계셨는데 그 교회 성도들이 계속 와서 예배도 드리고 돌봐주셨어요. 어머니는 거의 탈진상태가 되셨어요. 어느 날 교회에서 오셨고, 늘 그랬듯이 어머니만 병실에 두고 다른 가족들은 모두 밖으로 나갔죠. 그날은 어머니가 힘없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그래서 얼떨결에 저도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

임 목사님은 교회 나간 지 한 달도 안 된 저에게 교회 열쇠를 주시며 밤 12시에 기도를 하라고 하셨어요. 신앙생활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다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10개월 동안 밤이면 12시에 올라가서 첨엔 아무것도 모르니까 성경책을 크게 읽고 주기도문, 찬송가도 읽었어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성령님이 기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기도도 하고 영적 세계가 어떠한 것인지 알게 하셨어요. 정말 당시 영적 전쟁이 치열했어요. 우리 집은 더군다나 자손 대대로 우상을 섬겼던 집안이었기 때문에 아주 많은 일들이 있었죠.

12시 자정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40일 작정 기도를 같이 했어요. 남편은 예수 믿는다고 사사건건 비아냥거렸죠. 그땐 제가 알던 남편이 아니었어요. 제가 교회에 나간 지 3주쯤 되었을 때, 남편이 저를 따라 새벽기도를 가겠다고 하더군요. 정말 놀라운 일이지요. 한 달된 사람에게 교회 열쇠를 주시면 기도훈련을 시키셨고, 두 달 되면서부터는 모든 공 예배에 참석하게 하셨고, 일주일에 세 번씩 성경공부를 시키시더니 바로 주님의 종으로 부르시더군요. 그리고 일년 안에 모든 가족과 친정식구들까지 다 교회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하셨어요.”

일 년만에 온 가족 교회 출석

- 권사님은 어떻게 새벽기도에 나가실 생각을 하셨나요?

주: “제가 장남인데, 어머니가 특별히 저를 많이 사랑하셨고 저도 어머니를 많이 사랑했어요. 일 년간 투병하시는 동안 저도 일을 정리하고 어머니와 같이 있었어요. 이번 기회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걸 모두 하지 않으면 후회하겠다 싶었어요. 장례식 절차 중에서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하는 물음이 있었죠. 교회 분들이 정말 사랑으로 돌봐주셨고 어머니가 아프시다라도 찬양하시면 잠깐 해맑아지시는 걸 봤거든요. 믿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마음은 열려있었어요. 돌봐주시는 것이 감사해서요.

장례가 끝나고 예배를 몇 번 드렸죠. 아내가 계속 새벽기도를 가니까 관심을 갖게 됐어요. 새벽기도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겠다는 마음도 있었고 교회라는 단체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죠. 새벽기도 때 찬양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셨어요. 그러다 말씀이 궁금해졌고 주일예배도 참석하게 되었어요. 주일설교를 통해 하나



선교사들의 안식처지기 주창호 권사·이해경 전도사 부부

님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면서 어머니가 천국에 계신 것을 알게 되었고, 나도 갈 수 있다면 내가 하던 모든 걸 그만두고서라도 이쪽을 택해야 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 처음부터 대단한 결단을 하셨군요. 이후 신앙생활은 어떠셨나요?

주: “하루는 교회 기도제목이 듣게 되었어요. 멈춰진 소 성전 공사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저는 당시 건축 일을 했기 때문에 한 달 만에 자비량으로 공사를 마무리하게 되었고, 목양실 인테리어도 멋있게 바뀌드렸어요. 나중에는 3년여 동안 교회 건축까지 했어요. 아무 일도 안하고 오직 그 일에만 매달렸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기간 동안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셨고 기쁜 마음을 부어주셨던 거 같아요. 그러나 그때 자기 의도 상당했다는 것을 복음을 만나고 난 뒤 깨닫게 됐어요.(웃음) 그러나 여러 이유로 8년을 섬기던 교회를 떠나게 됐고 지금의 교회로 옮기게 되었어요.”

- 교회를 옮기게 된 특별한 사연이 있으신가요?

이: “다른 건 없었고 제가 2013년 다시복음앞에 집회 때, 2박 3일 동안 선한목자교회에서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 교회 성도들은 참 행복하겠다고 생각했어요. 집회에 참석하며 내가 목말랐던 이유가 무엇인지 조금 알게 되면서 목마름이 해소되었어요.”

- 목마름이 해소됐다고 하셨는데 목말랐던 이유가 무엇이었죠?

이: “교회에 나간 지 얼마 안 되서 신학을 공부했어요. 그러나 전도사로 사역하면서 내가 선포하는 복음이 내게 실체가 되지 않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주님께 사역자가 아닌 평신도로 헌신 봉

사하겠다고 했어요. 급기야 주의 종의 길을 가지 않겠다고 21일 금식까지 했어요.(웃음) 동일한 3번의 꿈을 통해 선교사로 부르셨지만 두려움 가운데 여전히 선교사는 밀어놓고 생각지도 않았죠.

그렇게 사역하며 목마름으로 힘들어할 때, 지인을 통해 “예수면 다다”라는 제목의 짧은 영상을 보며 홀라당 뒤집어졌어요. 그러고는 인터넷을 통해 다시복음앞에 집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참석하게 되었죠. 그곳에서 복음이 이런 거구나 알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복음학교라는 곳을 알게 됐어요.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참석해보기로 했어요. 미루고 미루다가 2년 만에 복음학교에 가게 되었고 남편도 그해에 복음 앞에 서게 되었죠.”

- 복음을 만나시고 두 분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이: “복음학교 이후에 섬김이를 신청해서 남편도 저도 동일하게 훈련생을 섬기는 소그룹의 조장으로 섬기고 돌아오면서 우리가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부분들을 나누게 하셨어요. 그동안 사탄에게 붙잡혀 털어놓지 못했던 우리의 실체를 나누며 참 자유를 얻게 됐어요. 그날 우리에게 실체가 된 복음을 나누며 마음으로 주 안에서 하나가 되었던 것 같아요. 서로 울면서 기도하며 서로 안고 있는데 갑자기 딸 부부가 들어온 거예요. 저희를 보더니 이건 무슨 상황인가 의아해했죠. 그래서 딸한테 “엄마, 아빠가 지금 신혼으로 돌아갔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저희 부부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딸도 아들 부부도 복음학교에 가게 되었고 모두가 복음을 만나게 되었어요.” [GNPNEWS]

E.H.

<뒷 이야기는 인터넷 복음기도신문(gnpnews.org)에서 이어집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 영원한 사랑의 복음 (1)

“위기의 시대에 교회가 지켜야 할 최후의 보루”



일러스트=노주나

우리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격변하고 있는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다. 절대 진리와 가치를 부정하는 인본주의와 세속주의의 횡포가 인권과

평등이라는 명분을 도용하여 병든 자아의 탐욕을 마음껏 드러내고 있다. 또 극단적 개인주의가 넓은 들판에 만개한 들꽃처럼 집단의 힘을 등에 업고 사회적 도발을 일

삼으며 탈(脫)권위와 비도덕적 일탈을 통해 하나님과 진리와 도덕을 비웃듯 공격하고 있다.

정욕을 하나님으로 삼고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삼는 뻔뻔한 세대에 살고 있는 ‘나 같은 죄인’이 받기엔 너무 어려운 명령은 단연코 ‘사랑하라’는 것이다. 심지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은 그 모양도 흉내 낼 수 없고, 그 근처에도 다가갈 수 없을 만큼 불가능한 것이다.

흥내낼 수 없는 주님의 명령,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딤후 3:1) 타락한 인류의 역사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악이 기승을 부리는 고통의 때가 될 것이며, 진리는 저항을 받고 불안은 가중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본주의적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은 오만한 지성과 힘을 의지해서 좋은 세상 곧 유토피아가 올 것이라고 화

려해 보이는 청사진을 내보인다.

하지만 말세는 고통 하는 때가 될 것이 자명하다. 속지 말아야 한다. 주님이 이미 마태복음 24장에서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경고하셨다. 마지막 때가 되면 배교와 재난과 미혹과 핍박의 때가 닥칠 것이다. 그러기에 누구도 믿기 어렵고 선과 악의 경계가 모호해 질 것이며, 불법이 판을 쳐서 끝까지 견디지 못하게 하는 결정적인 믿음의 재난이 닥칠 것이다.

수많은 고통과 어둠과 혼동과 도전이 있을 것이지만 그것 가운데서 가장 결정적인 재난은 ‘사랑’이라는 고지(高地)를 빼앗기는 것이다. “불법이 성하므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마 24:12) 말세를 견디게 하는 최후의 보루(堡壘)는 사랑이다. 그런데 마지막 불꽃을 밝힐 ‘사랑이라는 희망’마저 빼앗겨 버리면 정말 끝이다. 사랑이 식어진 시대, 사랑의 열기를 느낄 수 없는 가정과 조직과 사회는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이보다 더

끔찍한 비극은 없다.

그러기에 주님은 이 시대적 위기 앞에서 있는 우리 교회를 향해 진리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명령하셨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골 3:14) 복음의 빛을 가진 교회는 세상의 빛이요 구원의 등대다. 교회는 이 세상의 마지막 희망이다. 세상의 한복판에 있기에 교회 안에도 수많은 위기들이 찾아온다. 불법 때문에 식어진 사랑, 분주함 때문에 잃어버린 첫 사랑, 유혹 때문에 변질된 사랑, 시련 때문에 타협한 사랑, 힘들어서 지친 사랑... 믿음의 재난 가운데 가장 심각한 위기는 이처럼 ‘사랑’을 빼앗기는 것이다. 교회의 대적(對敵)들은 교회로부터 사랑을 빼앗기 위해 필사적으로 달려들 것이다. 사랑을 빼앗기면 가장 끔찍한 위기와 재난이 닥친다. (2017년 5월)

<계속> [GNPNEWS]

김용의 선교사 (순회선교사, LOG미션 대표)

히브리어로 만나는 복음 (33)

칠후 같은 어둠을 깨트리는 기도



절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통곡하며 애원하는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구원을 앙망하는 거룩한 하나님과 타락한 이스라엘을 잇고자 하는 절규가 들어있다. 그녀의 탄식은 개인을 넘어선 이스라엘의 탄식이요 절규이다. 성전 문을 열고 들어가 하나님의 전 문설주 옆에 앉은 제사장 엘리 앞에, 과감히 담대하게 기도의 자리를 펼쳤다. 자신의 기막힌 억울함과 고통과 울분을 쏟아내며 시작한 그녀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 동이 터오는 새로운 시대를 갈망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서원기도로 변하게 된다. 하나님 나라의 의를 간절히 열망하는 꺼져가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리는데 축복의 통로가 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기도였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

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삼상 1:11) 그녀의 기도는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고(시 20:7, 사 62:6~7), 마음을 토하고(15절), 통곡과 절규의 기도였음을 히브리 본문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동족목적어, 부정사절대형, 동의적 병행어법 사용). וְתָדַר נְדָרָהּ (바티도르 네데르, 그가 전심으로 서원하여) אֶם-תִּרְאֶה אֶת-תְּפִלָּתִי (임 라오 티르예, 만약 참으로 돌아보시고) וְזָכַרְתִּי לְךָ אֶת-תְּפִלָּתִי בְּבֵרוֹתַי (우즈카르타니 베로 티쉬카흐 엘아미테카,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면) 제사장 엘리야가 한나의 기도를 주목하고 입을 연다. 그가 그녀의 기도를 이해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제사장 나라’여야 할 이스라엘, 생

명을 날아야 할 제사장 엘리의 영성은 둔하고 무거워 이미 맛이 간, 생산이 멈춘 ‘불임’ 제사장이었다. 마음을 토하는 한나의 기도를 한낱 술 취한 소리로, 술주정으로 이해했다.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삼상 1:13~14)

하나님만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다

우리는 제사장 엘리의 말을 통해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능히 짐작할 수 있다. 당시에 얼마나 많은 예배자들이 술에 취해 하나님의 전을 드나들었는지 알 수 있다. 어느 목사님은 현 한국교회를 술 취한 교회로 그리고 목사를 술에 취해 주정을 부리는 술주정뱅이 목사라고, 그리고 그들이 수술을 하겠다고 칼을 잡고 수술실에 들어가 있는 격이라고 진단했다. 맞는 말이다. 사실 한국교회와 신학교는 위기에 놓여있다. 특히 신학교는 더 그렇다. 사자(lion)를 사자(患者)되게 해서 사자(死者)로 보내는 곳이 신학교가 되었다. 우리가 이 위기의 시대에, 무엇을 해야겠는가? 학생들을 끌어모아 가르친다고 될 일이 아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인간의 마음을 바꾸지 못한다. 스가라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꿈꾸는
GPM 복음과기도미디어에서
영상제작 동역자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바로 지금,
 주님이 부르십니다**

섬김 영역: 영상 기획/촬영/연출/편집
 동역 자격: 기도하며 은혜로 섬겨주실 분
 카메라, 캠코더 등 영상관련 기기를 다룰 줄 아시는 분
 프리미어, 베가스 등 영상 편집 툴을 다룰 줄 아시는 분
 E-mail : gnpnews@gnmedia.org, Website: gnpnews.org
 문의: 010-6326-4641

유튜브·페이스북에서 '복음과기도미디어' 를 검색하세요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속 4:6)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만이 변화시킬 수 있다. 이게 복음이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속 4:6) 한나의 기도가 하찮은 것 같지만, 변화와 역사를 일으켰다. 희망이 보이게 한다.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그녀의 기도는 이스라엘 역사에 새로운 희망을 던져 준다. 술에 취해 무감각하고, 무관심해, 도저히 마음이 동할 수 없는 무감동한, 생기 없는 돌 같은 엘리의 마음을 열기 시

작한다. 무엇이 이를 가능하게 하는가? 바로 기도가 막힌 물꼬를 튼다. 기도가 칠후 같이 어두운 사사 시대 끝의 어두움을 깨트려 몰아낸다. 그리고 왕정시대를 동이 터오게 만든다. 어두움을 열고 여명을 밝아오게 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완전한 장치가 바로 기도다. 그래서 에이미 카마이클이라는 훌륭한 선교사는, “오 주님 당신의 은혜로 본성으로는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들을 제게 이루어주소서(May thy grace, O Lord, make that possible to me which seems impossible to me by nature)”라는 기도를 드렸다. <계속> [GNPNEWS] 김명호 교수 (복음기도신학연구소 소장)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지혜롭게 사용해야 할 물건

10대 청소년들이 기독교 세계관을 배우면 어떤 사고의 변화를 경험할까? 기독교 학교 헤브론원형학교 학생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기독교적 가치관을 학습하며 경험한 내면의 변화를 다양한 주제로 발표했다. 다음은 발표내용 요약문이다. <편집자>

성경에서는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 평생 돈과 떼어놓을 수 없는 삶을 산다. 히브리어로 돈은 '케세프'다. 이 단어에는 '우상을 만들 때 쓰는 은'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 곧 돈은 우상을 만드는 재료라는 것이다.

한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 가운데 '재수 없다'라는 단어가 있다. 재수는 재물의 운수를 뜻한다. 이런 표현을 통해, 우리 인식 속에 돈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미래를 좌우한다는 생각이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2008년 일본청소년연구소가 한·일·중·미국 고등학생 약 1500명을 대상으로 '부자가 되는 게 성공한 인생인가?'라는 질문에 한국 학생들의 50%가 '그렇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돈을 벌기 위해 어떤 수단을 써도 괜찮다'

가 23%, '돈으로 권력을 살 수 있다'가 54%라고 응답했다. 이 결과는 다른 나라 학생들에 비해 높은 수치였으며, 우리나라 학생들이 얼마나 물질주의에 사로잡혀 있는지 알 수 있게 했다.

우리는 말로는 가장 좋은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에 동의하지만 여전히 비싼 것, 돈이 많은 것을 원한다.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될까?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알 수 있다.

'케세프'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일거리'로 번역된다. 이 헬라어는 유다가 '예수님을 판 돈'을 말할 때 쓰인 단어다. 그리고 '정련되어야 할 은'이란 뜻도 포함되어 있다. 돈은 사람이 사랑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돈을 통해 우리를 정련시키고 다듬으셔야 할 영역일 뿐이다. 또한 지혜롭게 사용해야 할 물건이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우리가 가진 돈의 주인 또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 돈을 정직히 주님께 묻고 사용해야 한다.



일러스트= 고은선

우리에게 생긴 돈을 우리는 다시 헌금으로 드린다.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헌금은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인데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 또는 성전을 짓기 위해 헌금을 했다. 가진 것이 많은 적든 전부를 드리는 모습은 참 아름답다. 예수님은 가난한 과부가 두 렵돈을 헌금하는 것을 보시고 칭찬하셨다. 그뿐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는 300 데나리온의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다. 헌금은 하나님께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표현이다.

또 '플로잉'이라는 형식을 통해 필요한 다른 지체들에게 흘러보낸다. 평생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도록 조치해 두신 것이다. 돈 없이 값없이 오직 은혜로 우리는 십자가 복음을 받았다. 이런 우리가 우리의 것을 아끼워한다면, 만달라 탕감 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빛진 이웃을 용서하지 않는 사람과 같다. 예루살렘이 기근으로 고통받을 때, 바울은 이방인의 교회로부터 연보를 모았다. 이 일로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가 더욱

연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도 많이 경험했다. 플로잉을 통해 우리 학교 전체 학생이 라면을 먹은 일도 있다. 플로잉을 통해 한 몸임을 경험했고, 더욱 사랑함을 표현했다. 이런 아름다운 일이 지속되고 있다.

돈을 구하고 사용하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시고, 돌보시는 것을 배운다. 그런데 정작 돈이 필요할 때, 기도하는 친구들은 절반에 그쳤다. 나머지는 부모님께 필요를 말하거나 스스로 해결한다고 했다. 학생인 우리도 주님이 채우시는 것을 경험해야 한다. 돈을 통해서도 때 순간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한다. [GNPNEWS]

이단비(19)

* 믿음의 글을 받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믿음의 삶을 나눠주세요. 믿음의 증인을 추천해 주셔도 좋습니다. gnpnews@gnmedia.org ☎ 070-7417-0408

부흥을 위하여

“북한 2500만 동포 구하기 위해 영화 만들어요”

이 시대 가장 고통 받는 우리의 이웃은 누구인가? 이 코너는 한반도의 부흥을 소망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가장 가까이에서 고통 받는 이웃, 북한의 기독교인들과 주민들에 대한 다양한 이슈나 사건,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 <편집자>

“공개처형 일정이 잡혔다는 이야기를 듣고 못을 삼켰어요” 탈북자 출신 김규민 감독(45)이 최근 BBC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인권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김 감독은 스물 다섯 살이던 1999년 북한을 탈출했다. 그에게 북한 밖 세상에 눈을 뜨게 한 것은 라디오였다. 그는 “사춘기 때부터 한국 라디오를 많이 들었는데, 대학에 가서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

대학을 자퇴했어요.”라고 말했다. “북한에서 대학을 그만두는 건 쫓겨나가거나, 아파서 나가거나 둘 중 하나인데 스스로 나가게 되면 문제가 달라져요. 혁명화 조치가 내려왔고 부모님은 해임돼 시골로 쫓겨 갔죠.”

그는 1999년 3월 북한 지방선거 당시 김일성 주석의 사진이 붙어 있던 투표소를 부순 혐의로 체포됐다. “공개처형 일정이 잡혔다는 이야기를 듣고 못을 삼켰어요. 그러니까 장이 썩기 시작하잖아요. 수술을 받으러 밖으로 나갈 때, 화장실에 가겠다고 하고 탈출했습니다. 1999년 4월 17일이었어요.”

김규민 감독은 생존을 위해 2000년 북한을 탈출해 이듬해인 2001

년 한국에 들어와 한양대학교 연극영화과에 진학했다.

그는 “원래 꿈은 배우였는데 외모와 사투리가 장벽이었다.”고 했다. “유명인이 돼서 북한에 대해 말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내 말을 들어주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어느 날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냥 감독을 하라.’고요. 배우는 써주는 시나리오를 읽지만 감독은 본인 시나리오를 쓴다고, 또 본인 영화에 본인이 나오면 아무도 뭐라 안 한다고 말해요.(웃음) 그런데 이렇게 힘든 길인 줄은 몰랐습니다.”

김 감독은 “사람이 정말 잘 본 영화 한 편은 죽을 때까지 기억하지 않느냐.”면서 “오감이 다 동원되는 영화의 힘을 믿어요.”라고 했다.

그는 작년 2월에 1990년대 북한 ‘고난의 행군’ 당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사랑의 선물’을 연출했다. 그는 영화에서 “김정일 정권 밑에서 잔인하게 쓰러져간 수백 수천만의 생명을 기억하고, 지금도 김정은 정권에 의해 죽어가고 있는 2500만 동포들을 구하기 위하여 카메라를 들었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에서는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말도 못하는 상황이다. 그



▶ 고난의 행군을 실화로 만든 영화 '사랑의 선물'

런데 국제사회에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준 데 대해서 감사하다.”며 “이 영화를 통해 감추려고만 하는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한 국내 인터넷 언론을 통해 소감을 밝혔다.

이 영화는 런던국제영화감독축제에 이어 지난달 미국 뉴욕 겨울영화제 경쟁 부문에도 출품됐다. 또한 작년 이탈리아 밀라노 국제영화제(MIFF) ‘최고의 영화’ 부문과 ‘여우주연상’ 부문에 노미네이트 되기도 했다.

김 감독은 2005년 영화 ‘국경의 남쪽’ 조감독을 시작으로 한국영화 시장에 뛰어든 뒤 2007년에 영화 ‘크로싱’, 2010년 ‘포화 속으로’ 등 상당수의 북한 소재 영화와 드라마의 스태프로 참여했고, 2011년엔 북한 동포들의 눈물을 담은 그의 첫 작품 ‘겨울나비’를 선보였다. [GNPNEWS]



▶ 탈북자 김규민 감독(출처: BBC Korea 캡처)

복음의 능력

죄를 공감하는가?

오늘날 죄 문제를 다루지 않은 상태에서 천국에 들어갈 방법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이는 불가능하다.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 유일한 소망을 두어야 한다. 복음의 소식을 듣는 자마다 소망을 갖게 된다. 우리 주님은 절대로 죄에 공감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죄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신다. 우리는 죄를 회개시키는 신학을 멀리하고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구세주의 능력을 선포해야 한다.

죄가 무엇인지 깨닫기 전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수 없다. 죄는 실체이다. 죄악은 현실에서 나타나는 실상이다. 은혜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성장했는가는 죄에 대한 우리의 예민성과 비례한다. [GNP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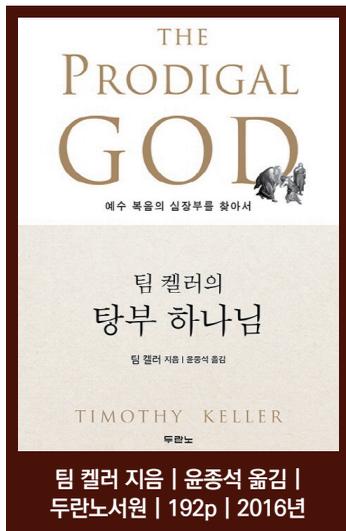
<제자도(2012), 오스워드 챔버스>



뷰즈 인 북스
Views in Books

팀 켈러 <탕부 하나님>

무모할 정도로 헤프게 베푸는 탕부 하나님



영어단어 프러디갈(prodigal)은 '무모할 정도로 헤프게 베푸는, 남김없이 다 써 버리는'이라는 뜻이 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에게 붙은 이 형용사를 저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표현하는 단어로 사용했다. 책을 읽는 내내 잃어버린 두 아들을 향해 아낌없이 탕진하신 아버지의 사랑에 감격하며

마음이 녹아내리는 시간이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 버린 둘째 아들을 위해 살진 송아지를 잡아 큰 잔치를 베푸신 하나님은 많이 듣고 자주 만나 왔던 것 같다. 늘 문 밖에서 기다려 주시며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온 나를 먼저 발견하고 달려와 주셨던 그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오늘의 나는 있을 수 없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큰아들이다. 매일 떠난 둘째를 기다리시는 아버지를 보면서 자기 할 일만 하던 큰아들은 돌아온 동생을 향한 아버지의 긍휼과 사랑에 결국은 분노를 터뜨리고 만다. 잃어버린 아들은 둘째만이 아니었다. 한 번도 아버지의 마음과 합하지 못했던 첫째 아들도 아버지 편에서는 다시 찾아야 하는 잃어버린 아들이었다. 둘째는 자신이 아버지를 어떻게 배신한 죄인지 알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큰아들은 자기의 의와 열심으로 인해, 자신이 아버지를 얼마나 멀리 떠

나 있는지 깨달을 수조차 없다. 어쩌면 더 무섭고 비참한 상황에 빠져있는 것이다. 큰아들도 둘째와 똑같이 아버지를 배신하고 떠났다. 단지 방법이 달랐을 뿐이다. '내가 아버지께 불순종한 적이 없으니 아버지도 내 인생의 모든 일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셔야 합니다.'라는 무언의 거래를 스스로 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버지를 사랑하지도 않았고, 그 권위를 인정하지도 않은 채 나의 원함을 위해 순종이라는 모양으로 아버지를 이용할 뿐이었다. 그리고 그 원함에 반하는 일이 생기자 아버지께 화내고 원망한다. 이기적인 목표를 자신에게조차 감추고 있었을 뿐이지 아버지를 사랑하고 기뻐하여 그분을 섬김 적이 없는 큰아들에게서 나를 발견할 수밖에 없었다. 큰 충격이었다.

그동안 내가 큰아들인 것은 잃어버린 동생을 열심히 찾아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둘째를 향한 아버지 마음을 더욱 공감하지 못

한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둘째보다는 조금 나은 큰아들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비유를 세리와 죄인들 뿐 아니라 옆에서 수군거리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말씀하신다. 이미 돌아와 눈물로 회개하고 있는 죄인들 말고 율법을 다 지키고, 열심히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말이다. 과격한 헌신과 불사르게 내어주는 섬김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돌보실 수밖에 없는 합당한 권리를 취득하고 있다고 부지중에 자부하고 있는 나를 향해 하나님은 '잃어버린 아들'이라고 말씀하신다. 오늘날 둘째 아들과 같이 잃어버린 자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기 어려운 이유는 나 같은 큰아들이 교회에 가득하기 때문이라는 말에 털썩 주저앉았다. 아버지 마음을 몰라 동생을 찾으러 나서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동생이 돌아오는 길을 가로막고 있었다. 아버지 자리를 꿰어찬 높은 의와 교만, 판단과 정죄로 말이다.

난 잃어버린 큰아들이지만, 둘째 아들을 향한 마음과 똑같은 사랑으로 날 기다리시는 아버지가 계시다. 무모할 정도로 아낌없이 모든 것을 쏟아 부어 나를 찾으시는 아버지가 계시다.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진정한 만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미처 돌아갈 준비도 되어 있지 못했던 나를 먼저 찾아오셨다. 마침내 찾아내셨다.

예수님의 비유는 큰아들을 권면하는 것으로 끝이 난다. 큰아들이 돌이켜 잔치에 참여했는지 알 수가 없다. 이제는 그 이야기를 해피엔딩으로 마무리 할 차례이다. 나를 위한 모든 행위의 열심에서 돌이켜 마음 깊이 아버지를 사랑하고 기뻐함으로 그분이 베푸신 잔치에 믿음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죽은 자, 잃어버린 자를 다시 살리시고 찾기 위해 아낌없이 만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에 오직 사랑으로만 반응하고 싶다. [GNPNEWS]

이규영 선교사



일상에서 만난 하나님

씩음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크라운처럼...

치과 치료를 시작한 지 벌써 2달째가 되었다. 20년 전 씩은 크라운을 벗겨내고 다시 씩우는 작업을 하는 시간이 참 더디게 지나간다. 성질 급한 내게 오랜 치료의 과정을 겪는 시간 동안 인내를 배우게 하신다.

신경세포들을 하나하나 찾아내고 치료하느라 많은 시간이 들었다. 어렵게 한쪽 신경 치료를 마치고 또 다른 치아를 열어보니 그 역시 많이 씩어 들어가고 있었다. 선생님께는 조금만 더 늦었으면 이쪽도 신경치료를 할 뻔했다고 하신다. 그렇게 크라운 안에서는 씩어 들어가고 있는데 반응은 무감각하다. 고기도 먹고 밥도 먹고 모든 것을 먹었다. 열어보기 전까지는 속의 상태를 알 수 없다. 치아를 덮고 있는 크라운은 어떻게 보면 무서운 회칠한 무덤 같은 덮개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평소에는 자신의 실체를 알 수 없어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으니 무감각한 채 회개도 하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심판의 자리에서 자신의 죄인 된 모습을 대면하고 후회하며 비참한 인생을 마감하는 것과 같다.

심판 전에 복음을 알고 회개하며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하다. 방학 내내 치료 침대에 누워 많은 생각을 했다. 내 안에 뿌리 뽑고 처리되어야 할 가나안 족속들, 음란과 부정과 악한 정욕과 탐심들, 파고 드러내고 뽑아내도 또 슬금슬금 기어 나오는 내 옛 생명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시는 시간이었다. 성령의 빛만이 드러내고 뽑을 수 있다.

사탄의 속임은 굽아 씩어가고 있음에도 크라운이라는 허울 좋은 덮개 하나 씩워 놓고 '괜찮다. 안전하다.'고 속인다. 시간이 지나니 굽아터진 자리에서 악취가 풍겨 나온다. 그렇게 오늘 이 시간에도 사탄의 간계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어둠 가운데 몰아가고 있음을 느낀다.

치아 신경 치료뿐 아니라, 한 영혼이 주님을 알고 복음을 알게 되기까지 참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깨닫는다. 치료를 끝내고 돌아오는 길에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복음의 여정을 돌아보게 되었다. 총체적인 복음을 접한 후 참 더디게 복음을 알아들었다.

많이 넘어지고, 많이 엎어지고, 많이 주저앉아 씨름하는 시간을 지나왔다. 안 되는 내게 절망하고, 엎어지는 나로 인해 괴로워했던



일러스트=이수진

시간, 지식으로 동의했던 진리들이 몸으로 알아지기까지의 시간은 흑독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시간이 너무나도 감사하다. 몸으로 깨지고 엎어지는 시간을 지나고 나니 하나님의 십자가로 구속해주신 사랑이 어떤 농도였는지 알게 되었다. 주저앉아 울며 배운 복음의 진리로 인해 지체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부여지게 하셨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고전 13:4~7)

사람으로 행할 수 없는 사랑, 나에게서는 나올 수 없는 사랑, 이 모든 사랑이 주님으로 비롯됨을 알게 하신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은 하신다. 오늘도 실수하고 넘어지는 시간을 통해 주님은 말씀하신다. 몸으로 배워 알게 하신다. 머리로 아는 진리는 복음의 과물을 만들어가지만 엎어지고 넘어져 눈물 흘리며 배운 진리는 몸에 새겨져 십자가로 일어날 힘을 얻게 된다. 그리고 더 주님을 사랑하고 싶다. 더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두 계명의 진리를 더욱 붙들게 된다. ‘주님은 사랑이시라’ [GNPNEWS]

김순안

구독신청 안내

구독부수는 최소 1명 이상에게 복음을 나누며 전하도록 2부, 20부, 100부 이상 신청받고 있습니다. 구독료는 받지 않습니다.

후원 안내

복음기도신문은 동역자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제작·배포되고 있습니다. 동역하실 분들은 아래 후원계좌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651001-01-343666

예금주: 복음과기도미디어

후원자 명단

2019. 3. 14 ~ 3. 27 (가나다 순)

개인

강주선 김명순 김선희 김성훈 김애심 김혜신 박숙자 양애숙 은종숙 이경형 이은주 이현희 임수일 임한근 장근혜 정해월 조경미 조명숙 차인순 차정규 최영환 최정숙 하은숙 무명

교회 및 단체

그루터기교회 김화제일교회 모리아선교회 반석중앙교회 복음기도신학연구소 산곡교회 산돌교회 새순교회 순회선교단미주지부 시은좌교회 시흥교회 열매교회 주소망교회 주석회사미션21 처음사랑교회 천보산민족기도원 큰사랑교회 하원교회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사 제보·구독·헌금·동역 문의는 아래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070-7417-0408-10
E-mail: gnpnews@gnmedia.org (31952) 충남 서산시 운산면 원평3길 8
페이스북 www.facebook.com/gospelprayernews

발행인 겸 편집인: 김강호, 인쇄인: 이병동(주)아이피디. 2019년 12월 1일 등록번호 충남, 다01355.(격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